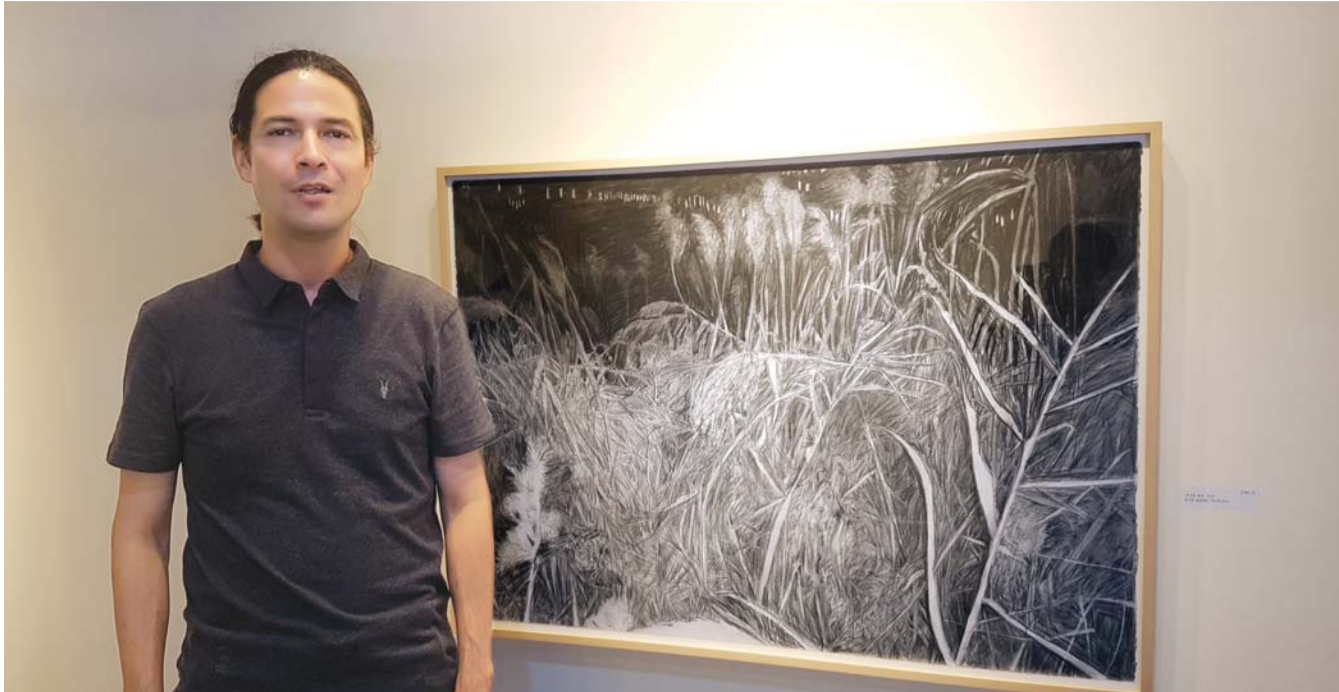


# “잡초의 생존 본능 유쾌하게 풀었죠”

김제민 전남대 교수 '존재의 발견'

한국인 아버지·미국인 어머니  
동양사학 전공 후 그림 공부  
'풀' 소재로 회화·판화 선배  
예술공간 '집' 30일까지 전시



광주 예술공간 '집'에서 전시를 열고 있는 김제민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작품 '잡초 호신술 비전-초식 42'를 보면 유쾌해진다. 주인공은 잡초 한포기. 기본 자세부터 시작해 찌르기, 피하기, 쥐권, 미인계 등 '생존'을 위해 42가지 호신술을 연마하는 잡초라니. 이를테면 '무에도보통지'(武에도보통志)의 '잡초 비전'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목탄으로 무성한 풀숲을 거칠게 그려나간 다른 작품은 깊이감을 전하며 느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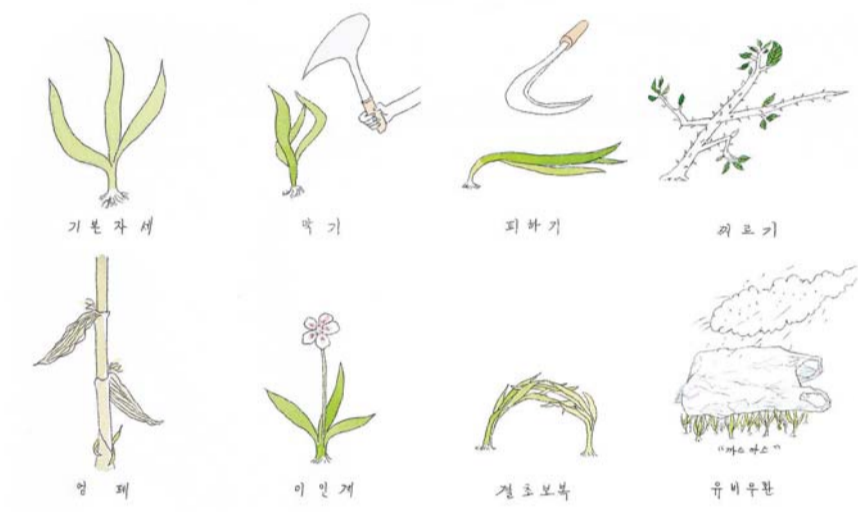
예술공간 '집'(광주 전남여고 앞)에서 열리는 '존재의 발견' (8월30일까지)전에서 만난 김제민 작가의 그림은 흥미롭다. 유희적 코드가 담긴 드로잉 작품과 목탄으로 화면을 뿔뿔하게 채워나간 작품이 함께 걸려 있어 상반된 느낌을 준다. 두 스타일에서 소재로 삼은 건 모두 풀이다. 화폭을 가득 채운 무성한 잡초더미와 하나하나의 풀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한다

김작가는 지난해 전남대학교 미술학부에 부임했다. 회화와 판화 작업을 병행하는 그는 소묘와 창작 드로잉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두 차례 그룹전에 참여했던 김작가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좀 더 많이 주는 자리다.

“꽤 오랫동안 풀 등 자연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어요. 서울 수유리 북한산 자락에 집이 있었는데 마당에 풀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주 살펴봤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무성한 풀숲더미를 그리다가 점차 한포기 한포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풀 하나하나마다 다양함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의 작품에는 유머가 있다. 주 소재인 '풀'은 러닝머신을 타며 체력단련도 한다.

“저에게는 유머 본능이 있어요. 썰렁한 유머라고나 할까요(웃음). 위트를 부러워해요. 진지한 부분을 비틀어서 표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



'잡초 호신술 비전-초식 42'의 부분.

에도 그런 느낌을 넣고 싶었죠. 잡초는 인간에게 톱밥을 당하는 대상인데 잡초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짓밟히지 않으려면 강인해져야 하니 스스로 단련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한다고 생각했죠.”

김 작가는 어머니가 미국인, 아버지는 한국인인 혼혈이다. 그에게 '다름'을 극복하는 과정은 '성장'하는 과정이기도했다. 고려대에서 동양사학을 공부한 후 다시 그

림을 배우기 위해 서울대와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서울대에서 만난 아내 이경하 작가 역시 학부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후 다시 그림을 전공한 케이스다.

“다섯살 때부터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면에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늘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내면의 갈등도 있었죠. 요즘처럼 글로벌한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풀을 뽑다

보면 마구 섞여 있는 무성한 풀들이 꼭 자화상 같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잡초를 뽑는다는 게 이중(異種)을 없애고 균일한 상태를 만드는 건데 제 자신도 어찌보면 '이중'이었으니까요. 역사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학문적 연구를 계속할 타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해 끄적끄적해왔고, 미술학과 강의도 많이 청강하고 그랬죠. 그림 자체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됐고 그림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 풍성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페인팅보다는 '선'으로 만들어내는 드로잉적 요소에 매력을 느꼈다. 판화 작업 역시 윤곽을 철필로 그리며 '선'적인 것에 매력을 느껴서였다.

“우리는 무심하게 보지만 잡초가 인간 행위의 목적자, 증언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우리를 보고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지요. 사학과 때 답사를 많이 갔는데 초목만 우거진 그 공간에서 텅텅음을 보기도 했죠.”

그는 앞으로도 목탄 작업과 유희적 코드가 담긴 드로잉 작업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33-3342. 일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예술난장' 굿미당 진행 모습.

## 신명난 굿판 속으로

광주예술난장, 25~26일 대촌전문문화커뮤니티센터

'광주예술난장' 열 번째 굿판이 오는 25~26일 광주시 남구 대촌전문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예술난장 굿판 추진위원회와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열사가 여는 이번 공연은 도깨비를 굿물 삼아 다양한 전통 난장문화로 무대를 꾸민다. 행사장 입구에는 도깨비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묻어난 가로 6m, 세로 7m 도깨비 문을 세워 관객들을 맞이한다.

센터 소극장에서는 요노키펠리, 뽀뽀와 아이들, 헤이스팅, 창작국악그룹노라 등 젊은 예술가들이 전통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25일 굿미당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신안씻김굿 예능보유자 진금순씨가 소안도 항일운동가와 한국전쟁 전후 피해자를 위한 씻김굿을 다음 날 새벽까지 연다. 김경

자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소안의 노래'도 상영한다. 26일 오후 6시부터는 무형문화재 우도농악보존회의 영광우평마을 도깨비고사가 펼쳐진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도 마련됐다. 참가자는 주신이 되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잡귀를 풀어먹이는 상인 '현식상'을 함께 치러 나눠먹는 자리를 갖는다.

전통축제 연행방식인 영신, 오신, 송신에 맞춰 진행되는 판마당에서는 도깨비굿과 하방세, 악단광탈, 타악그룹 연주 등의 신명나는 한판이 벌어진다. 마당에 원형 형태의 객석을 쌓아 올려 공연자와 객석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게 했다. 1일 입장료 1만원. 문의 062-676-384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최영미 시인 “이 재판은 그의 장례식 될 것”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피소’ 기자회견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사진) 시인은 23일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의 미래가 걸려있으므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며 “이 재판은 그의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미 시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미투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며 “제가 술집에서 그의 자위행위를 목격했다는 사실, 제 두 눈 뜨고 똑똑히 보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최 시인은 지난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발표했고, 이 시가 알려지면서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또한 모 방송 뉴스에도 출연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말했다. 이에 고은 시

인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시인 외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전화 상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옛 선비들은 어떻게 여름을 냈을까?

내일 '성산계류탁열도' 재연...북구 충효동 환벽당

1590년 당시 선비들의 풍류를 그린 '성산계류탁열도'의 장면이 오는 25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충효동 환벽당에서 일원에서 재연된다. <사진>

위를 식히며 시화를 즐기는 풍경을 담은 그림이다. 여기에는 김성원, 김복역, 김부륜, 오운 등 11명의 선비가 등장한다. 이는 김성원 문집 '서하당유고'와 정암수 문집 '창랑유집' 목판본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이번 재연행사는 김성원의 '환벽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 자리에 모인 선비들은 환벽당에 올라 시국과 학문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증암천 용소에서 발을 씻고 시를 읊으며 거문고를 연주한다. 또 복달임 음식인 닭죽을 나누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번 재연행사는 광주문화재단의 풍류남도나들이 사업 '누기풍류처사' 특별 기획으로, 10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환벽당·취가정·석영정·소쇄원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2-232-215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